

#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명단

□ 재외동포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 7. 31.(월) 24:00(한국시간 기준) 까지** 아래 의견제출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 검증 기간(의견 접수 기간) : 2023.7.17.(월) ~ 7.31.(월) 24:00(한국시간 기준)

○ 의견 제출처: 이메일(hjunkim15@korea.kr)

※ **아래 명단은 최종 추천대상자가 아니며**, 이번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상훈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추천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 제출하신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의 회신은 하지 않습니다.**

※ 허위, 비방 정보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자는 실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실명과 연락처 미기재 시 제출하신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동 게시물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성명 가나다 순)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	강계수	재가나한인회 부회장	· 강계수는 12여년간 한인회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아프리카 최초로 한인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매년 문화·체육행사를 주관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고립된 재외국민들의 전세기 등을 이용한 귀국 지원 및 백신 확보·접종 지원 등 활동으로 동포사회의 발전과 위기 극복에 기여함.
2	강석희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 회장	· 강석희는 봉사단체 실장으로 29년 동안 한국동포 인권보호,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지원에 앞장섰으며 625 참전 단체 초대회장으로 19년에 걸쳐 참전 유공자회 뉴욕지회의 발전, 한미 동맹 강화 등 대한민국 국위 선양에 기여함.
3	고석화	뱅크오브호프 명예회장	· 고석화는 1981년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의 창립멤버로서 43년간 모국의 경제발전과 수출 촉진 해외 한인 기업 간 무역활동 지원, 차세대 무역인 양성을 통해 한인 이미지 제고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	고정미	와이카토 한인회장	· 고정미는 지난 23년간 한글학교 교장, 와이카토 한인회장, 한뉴우정협회 회장 및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동포사회 발전 및 우호적 한-뉴 관계 형성에 기여함.
5	권오현	제일본대한민국민단도쿄 지방본부 고문	· 권오현은 46년간 민단도쿄본부 및 민단아다치지부 활동, 지문날인 반대 운동 등을 통해 동포 간 화합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민단도쿄본부회관 및 아다치지부 회관 건설 모금에 기여, 아다치구 일한친선협회 설립에 진력하는 등 한국 이미지 제고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6	김계수	파독광부기념회관 운영위원회 명예관장	· 김계수는 내과의학박사 퇴직 후 노령화의 파독광부간호사 정기적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문화회관 관리, 운영, 리모델링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기여함.
7	김규환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상임고문	· 김규환은 20여년간 식품유통업을 통한 본국의 농식품 홍보, 수출 진흥에 기여하였으며 재일동포들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과 지원, 교류활동으로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8	김덕	왕가누이한인회 회장	· 김덕은 지난 14년 6개월간 왕가누이한인회에서 활동하며 한국전 참전용사 및 유가족 초청 사은행사 개최, 퀸즈파크공원 내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비 건립 및 매년 추모행사 개최 등의 봉사활동으로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
9	김도균	감비아한인회 회장	· 김도균은 우리 국민의 감비아 입국 및 정착 지원, K-RICE BELT 사업 출장단 지원, 국내 중고차 수출, 우리 기업 및 개인 무역 관련 지원, 선교사 활동 지원과 영사협력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등 감비아 한인사회 발전과 안정에 기여함.
10	김두환	前 베네수엘라한인회 회장	· 김두환은 한인회를 규합하여 한인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자사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위상을 크게 제고함으로써 동포사회의 안정과 화합·발전은 물론 양국 우호 관계 구축에 기여함.
11	김병주	내몽고한국인회 회장	· 김병주는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한중 문화교류 증진과, 한국과 한인회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를 통해 중국은물론 유럽 지역 등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함.
12	김선화	루이지애나참전용사회 회장	· 김선화는 루이지애나 지역 한국전 참전용사 협회를 조직하여 참전용사들을 후원하고 기리는 일에 적극 기여함.
13	김수진	보라카이한인회 회장	· 김수진은 1991년 보라카이에 정착한 이래 관광객을 비롯한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을 위해 영사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고, 코로나 기간에는 봉쇄된 섬에 갇힌 우리 국민의 전세기 귀국을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함.
14	김영기	재스페인한인총연합회 회장	· 김영기는 42년간 스페인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며 태권도 전파를 통해 한국인의 위상 제고에 앞장서고 한인회장으로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5	김영일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이사	· 김영일은 재일본관서한국인연합회 이사, 관서주재한국기업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공공외교 위원장, 오사카한국상공회의소 상임이사, 오사카 김치축제 위원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
16	김은총	퀸즐랜드한인회 재무부장	· 김은총은 퀸즐랜드 주 한인회의 재무부장으로 일하며 한인회의 재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한인 2세 등 젊은 세대들이 한국과 한인회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데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7	김일희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오사카본부 고문	· 김일희는 54년간 민단과 부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조직 발전은 물론 재일동포사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민단 오사카부 본부와 민단 오사카부 이쿠노니시 지부에 기부하여 조직 활동과 발전에 기여함.
18	김재례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행사분과위원장	· 김재례는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임원과 민주평통 17-18기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과 소외계층 지원 활동에 기여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기여함.
19	김종완	프랑스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 김종완은 1994년 제103차 IOC 총회 시 홍보부장으로써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 채택에 공헌하였으며, 프랑스 심판 교육, 기술 세미나, 주불대사배 태권도대회 등 프랑스 내 태권도 보급 및 발전에 기여함.
20	김종익	남아공한인회 고문	· 김종익은 남아공 이민 초기부터 다른 한인들의 이주 정착을 돕고 장애인 학교 후원 방문, 우물파기 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인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21	김종철	앙골라한인회 부회장	· 김종철은 현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한국인의 위상 및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현대중공업 발전기 수주, 건설, 유지 보수에 공헌한 바 있고, 한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한인사회발전에 기여함.
22	김종팔	포스콘그룹 회장	· 김종팔은 필리핀 마닐라 한인사회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10여년간 자선 단체를 통한 봉사활동과 필리핀 경제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재외동포사회 발전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함.
23	김중훈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	· 김중훈은 한인 문화 행사, 체육대회, 교민 송년의 밤 등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동포사회의 단합과 멕시코에서의 한국 이미지 제고에 일조하고, 현재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중남미 각국 한인회의 발전과 중남미 교민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함.
24	김창범	前 시카고동우회 회장	· 김창범은 50년간 시카고 한인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미주 한인 권익 신장 및 동포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동포 단합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공헌하였으며, ‘미주 한인이민 100년사’ (2004년) 및 ‘시카고 한인이민사’ (2012년) 편찬에 적극 참여하여 동포 역사 보존에 기여함.
25	김창부	재일본대한민국민단사이 타마현지방본부 상임고문	· 김창부는 41년간 민단 조직 활동을 통하여 재일동포 법적지위와 권익향상, 민족교육, 한일 친선, 조국의 평화통일, 외국인의 지자체 주민투표 최초 참여 공로 등 차세대 육성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26	김채영	前 크라이스트처치 한인회 자문, 홍보부장, 부대표	· 김채영은 14년간 크라이스트처치 한인 사회를 위해 다양한 교민 및 현지 단체에서 봉사하였으며, 크라이스트처치 시청, 뉴질랜드 중앙 정부, 대학교 등 현지 기관과의 소통을 도맡아 교민들이 재정착하는데 기여함.
27	김춘자	토리노한인회 회장	· 김춘자는 토리노 지역 주요 사회지도층 및 대중을 대상으로 한 한국 홍보 활동, 한국 상품의 이탈리아 수출 지원, 이탈리아 한국 아동 입양가족단체 지원, 다양한 봉사 및 기부 등을 통해 한-이탈리아 우호 증진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28	김태권	아샤드해운 이사	· 김태권은 대한민국 조선소의 우수성을 중동 선주들에게 알리고 소개하며 국내 조선사가 대형 유조선 등 다수의 선박을 수주 및 인도할 수 있도록 일조하였으며, 국내 조선소에도 입찰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29	김행태	(사)재일한국인귀금속협회 상임이사	· 김행태는 4년 동안 귀금속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체험공방을 운영하여, 한국 세공장인들의 우수성을 일본사회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고령동포 잔치>를 열어 독거노인과 고령자들을 위로하는 등 동포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함.
30	김현수	미주한국일보 오리건지국장 겸 편집인	· 김현수는 언론인으로서 신문방송을 통해 동포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며 발전에 공헌해왔으며, 한인회장을 맡아 한인사회 최초로 주정부 보조금을 유치하는 등 동포들의 교육 문화 복지사업 강화에 기여함.
31	김현정	미시시피한인회 회장	· 김현정은 미시시피 한인사회 결집과 한인회 결성, 한국 문화의 주류사회 전파에 기여함.
32	남사랑	재일본대한민국민단도치 기현지방본부 상임고문	· 남사랑은 지방본부 3기관장을 모두 역임하며, 50여년에 걸쳐 헌신적으로 민단 사회에 봉사하였고 지역주민들과의 교류에 힘 썼으며, 신규 정주자, 유학생, 귀화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민단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함.
33	노명화	글로벌전략연구원 대표	· 노명화는 11년 6개월 간의 글로벌 전략연구원 설립 및 대표직 수행, 19년 11개월 간의 한미경제연구소 활동, 대한민국 광복회 워싱턴지회 부회장,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부간사를 역임하며 한미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외교 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 국위선양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34	노미자	재독한인간호협회 고문	· 노미자는 재독한인간호협회를 창립하여 우수한 한국 간호의 위상을 정립시켰고, 한국 간호사의 재취업에 관한 근로 법규 재조정 및 간호협회의 평화적 통합 등에 기여함.
35	노철수	재콜롬비아한인회 고문	· 노철수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식용수 공급을 지원 등을 통해 콜롬비아 내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차세대동포들이 민족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한글학교 건립을 적극 주도하였고, 민주평통 및 한인회 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36	노희용	중국영구한국인(상)회 명예회장	· 노희용은 지난 10년간 중국 영구한국인(상)회 회장 및 영구주말한글학교 후원회장, 그리고 e-동북3성 한국문화원의 후원회장 등을 역임하며 교민 공지와 권익신장, 청소년 교육지원, 봉사활동을 통한 공공외교, 한중간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37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	단체	· 대한노인회 브라질지회는 1978년 창립 이래 한인 노인들에게 건강 세미나, 게이트볼 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 건강 증진에 공헌해왔으며, 점심 제공, 도시락 배달 등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거리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38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단체	·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한인 및 지역사회 타인종들에게까지 팬데믹 관련 각종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도우며, 한국 이미지 제고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39	마이클박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도시개발 커미셔너	· 마이클박은 지난 18년간 미주 지역사회의 차세대 리더로서 한인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과 역량 강화에 앞장섰으며, 귀넷카운티 도시개발 커미셔너 등 다수의 임명직 수행을 통해 조지아주 및 귀넷카운티 미주 한인의 날 공포문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함.
40	문미경	시안한국인(상)회	· 문미경은 시안한국인회 회장으로서 동포들을 대표하여 역할을 수행하였고 교민사회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교민들의 교육, 일자리 제공, 법률 문제 등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41	문영희	재독한인간호협회 고문	· 문영희는 36년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재독한인간호협회 창립이사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회, 한글학교 등 단체에서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활동과 각종 기념행사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전력하여 의료계의 모범과 국위선양,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함.
42	문정균	재독한인간호협회 고문	· 문정균은 재독한인간호협회에서 6년 동안 회장과 부회장으로 한국인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 힘써 왔으며 특히 고령의 파독근로자 등을 위해 건강세미나 및 보건방문서비스등을 수행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3	문제신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회장	· 문제신은 재중국한국공예품협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공예품 산업의 상호 회원사들의 미래발전 방향 및 경쟁력 강화 지원과 불우이웃 돕기,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돕기, 코로나 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 세무, 노동 비자 정책에 대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4	미주한인재단 위싱턴	단체	· 미주한인재단 위싱턴은 2005년 1월 13일 미주한인의 날 제정에 기여하였으며, 한인 커뮤니티와 미국의 다양한 커뮤니티 간 관계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개최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5	박기순	미 재향군인회 한인 829지부 사령관	· 박기순은 주한 미군 정보요원으로 미 육군 항공대의 잉여 군수 부품 한국 공군 이양에 공헌하였고, 보잉 항공사 재직시 한국에 항공 기술 전수를 지원하였으며, 재향군인회 및 한국전참전용사기념비 건립위원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46	박남주	재일본대한민국부인회 히로시마현지방본부 상임고문	· 박남주는 한국인 피폭자로서 피폭자 증언 활동 및 전승자 양성에 전념하여 동포사회 차세대 육성에 진력하고 세계 평화 구축에 기여함.
47	박도병	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사 카부지방본부 상임고문	· 박도병은 38년간 민단에서 활동하면서 재일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보호, 민단조직 활성화와 역량강화에 공헌하고, 기부 등을 통해 민단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
48	박상민	상해한국상회 수석부회장	· 박상민은 지난 8년여간 SOS솔루션(민간NGO) 대표 및 상해 한국상회(한국인회) 부회장으로서 상해와 인근지역의 한국인들을 위해 사고지원(사건사고 및 법률, 의료 지원활동 등) 및 코로나 19 지원활동으로 교민사회의 안전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49	박성만	위싱턴중학교 교사	· 박성만은 미국 하와이에 소재한 공립학교에서 20년간 한인 수학 교사로 근무하며 각종 수학 경시대회에서 다수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재외동포 자녀들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차세대 재외동포 교육 발전에 기여함.
50	박소영	재방한인회 부회장	· 박소영은 방글라데시에서 한인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서남아 협의회 자문회의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역임하며 헌신적인 자세로 한인 여성의 권익 신장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과 유대 강화에 기여함.
51	박재용	재아르헨티나 재향군인회 예비역 장교단 회장	· 박재용은 아르헨티나에서 민속무용협회, 씨름협회, 서화예술인협회 등 단체 창설에 기여하여 한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경로사상 고취와 청소년을 위한 행사기획, 동포단체 행정지원과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교민사회 발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52	박제영	북경한글학교 교사	· 박제영은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포함한 차세대 동포 대상 한글교육에 헌신적 노력으로 재외한글학교 발전 및 차세대 교육에 공헌하였고, 중국한국인화·북경투자기업협회·민족화해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다양한 동포단체 활동을 통해 민간 차원의 한중 교류 증진에 기여함.
53	박천옥	대도 인터네셔널 회장	· 박천옥은 태권도용품 제작업체를 운영하며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제고, 한인회장으로서 공관 재개설 청원 운동 등을 실시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54	배철화	청도조선족기업가협회 회장	· 배철화는 지난 10년간 청도조선족기업협회 고문,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중경제교류 촉진과 동포사회 단합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문화 선도 등을 통해 동포사회 권익 수호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55	백옥숙	독일남부한인회장단 협의회 부회장	· 백옥숙은 칼스루에 한글학교장, 한인회장, 독일남부한인회장단 협의회 부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한인들의 유대형성 및 단합, 차세대 동포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등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함.
56	백현미	미동남부한인회연합회 부회장	· 백현미는 클락스빌 한인회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클락스빌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현지 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및 안정적인 정착에 공헌하고 지역 내 한인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함.
57	변성철	스리랑카한인회 회장	· 변성철은 한인회장으로서 코로나19 시기 대사관과 협력하여 동포들의 건강과 치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공공외교 활동을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 양국 기업 간 교류를 통한 對스리랑카 수출 증대 등에 기여함.
58	변재선	자알란트한인회 회장	· 변재선은 KST 유럽연구소 설립에 산파 역할을 수행하고, IMF 위기시 주정부 보조금을 확보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공헌하였으며, 정부 산업계·학술계 등의 친한 인사로 구성된 독한협회 지부를 창립, 운영하여 양국 우호 기반 조성에 기여함.
59	북경 다누리센터	단체	· 북경 다누리센터는 북경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교육, 정보교류, 고충상담, 문화교류 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점차 비중이 커지는 중국 내 다문화가정의 권익과 단합에 기여함.
60	브루노 범진김	브라질의류협회(ABIV) 최고경영자(CEO)	· 브루노 범진김은 2000년도부터 주재국인 브라질 의회 등에서 재직하면서 대한민국과 주재국 간 교류 증진을 위해 ‘한국이민의 날’, ‘한국문화의 날’의 조례 제정과 각종 문화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등 대한민국 위상 제고와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61	사공경	한인니문화연구원 원장	· 사공경은 문화탐방, 열린강좌, 문학상을 진행하며 민간문화교류와 교육에 이바지하였으며, 한인니문화예술의 양방향 전파를 위해 각종 세미나·전시회 개최, 인문학 저서 출간, 예술가 교류 등을 추진하며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62	사랑의 집	사랑의 집	· 사랑의 집은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소외계층 동포인 노인, 노숙자, 서류미비자, 환자 대상 긴급 구호 서비스 제공 및 사회 복귀 지원을 통해 동포애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한인 무연고자 장례를 수행하는 등 동포사회 화합 및 권익보호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63	샤론 하츠 황	前 필라델피아한인회 회장	· 샤론 하츠 황은 필라델피아 한인회 회장으로서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주류사회 내 한인사회의 위상을 제고했으며, 유권자 등록 캠페인, 필라델피아 흑인 폭동 및 코로나 기간 중 동포사회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64	서용혁	재인도한인회총연합회 간사	· 서용혁은 2012년부터 한인회 임원진으로 활동하며 인도의 심각한 코로나 시기에 봉쇄령으로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고립된 한인들에게 방역 물품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산소호흡기를 배포하는 등 동포들의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기여함.
65	서원호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고문	· 서원호는 한인봉제협회 회장, 한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얀마 국가비상상황 하 한국-미얀마 경제교류 활성화 및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을 통해 동포 사회 발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함.
66	서정길	6.25참전유공자회 서부지회 부회장	· 서정길은 캐나다에 한인태권도 협회를 창설하여 태권도를 보급하고 6.25 참전용사 대상 민간외교활동을 통해 한국문화 이미지 향상에 기여함.
67	석은옥	강영우장학재단 이사장	· 석은옥은 사회봉사를 통해 한인 동포, 15세 및 2세 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동포사회, 특히 젊은이들의 귀감이 되어 자신감과 긍지의 원동력이 되는 등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68	소망 소사이어티	단체	· 소망 소사이어티는 16년간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자원봉사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통해 한인 시니어 복지 증진에 앞장 섰으며,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 557개와 학교 9개를 세워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함.
69	소진화	前 진소무역 대표	· 소진화는 재포르투갈 한인회 및 한글학교 창설을 주도하였고, 한인회 등 활동을 통해 한인 정체성 형성 및 동포사회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무역업에 종사하며 한-포르투갈 경제교류 증진에도 기여함.
70	손봉수	재중국대한체육회 상임고문	· 손봉수는 재중국대한체육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체육을 통한 봉사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와 현지 사회와의 교류 증진 및 친목·화합에 기여함.
71	손택천	한인사회발전협의회 회장	· 손택천은 주정부 금융규율국 징벌위원으로 법규 개정을 통해 부동산 업무를 정비하고, 시카고시운수국에 한인 최초로 관리직에 임용되어 대중교통 서비스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다양한 기관 및 단체 활동을 통해 한인 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함.
72	송기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교토부분부 상임고문	· 송기태는 59년간 전국체육대회 재일동포 선수단에서 선수, 인솔자, 지도자 등으로 활약하며 재일동포 체육인재 발굴 및 양성에 공헌하였으며 민단지부 및 본부 간부로서 활동하며 한국 역사 유적지 탐방, 모국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차세대 민족교육 및 정체성 함양 등에 기여함.
73	송민수	오로라시 시청 행정관	· 송민수는 콜로라도 오로라시 한인사회와 주류사회의 교량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전 참전용사 메달 수여식, 오로라시 한복의 날 제정 등에 공헌하여 한인사회 역량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함.
74	송창주	이준열사기념관 관장	· 송창주는 1995년 이준 열사 기념관 건립이래 27년 이상 기념관을 운영하며 역사 자료 수집 및 출판 활동 등을 통해 역사 보존에 공헌하였으며,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초대 교장을 맡아 한글 교육 및 문화 증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75	송효숙	오스트리아한인문화회관 관장	· 송효숙은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과 후원 활동으로 유럽과 한국을 잇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며 한인 사회 위상을 드높이고 한국의 국격 제고에 기여함.
76	송희영	재과테말라한인회 고문	· 송희영은 한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동포사회의 코로나 극복 및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과테말라 한인문화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동포단체를 이끌면서 동포사회의 발전과 위상 제고에 기여함.
77	신성식	재독독도지킴이단	· 신성식은 파독 광부 협회 회장, 재독 총연합회 부회장, 베를린 한인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독일 및 베를린 동포 사회에 기여해오고 있으며, 지난 8년여 간 독거 노인들을 돕는 단체에서 간사로 봉사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78	신용택	천진한창공예유한공사 동사장	· 신용택은 천진한국인(상)회 및 동포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천진지역 동포사회단합과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천진한국국제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차세대 동포 육성과 교육 발전에 기여함.
79	신정삼	민단가나가와현본부 고문	· 신정삼은 상기인은 일용근로자 출신 등이 밀집한 가와사키시 지역에서 가나가와민단 가와사키남부지부 감찰위원장, 단장 등을 역임하며 남부지부 및 쓰루미지부 한국회관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동포의 생활 향상과 발전에 기여함.
80	양동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 본부 상임고문	· 양동일은 52년간 민단 각급 조직의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부터 민단 중앙 본부의 간부로 활동하며 재일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81	어거스타 한인회	단체	· 어거스타 한인회는 지난 40년 동안 지역 한인들을 위해 봉사하며 한인사회 위상을 주류사회에 알려왔으며, 지역 한인들의 자발적인 기금 마련으로 2023년 한인회관을 개관하여 차세대 한글 교육, 한국문화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82	엄기웅	16대 재멕시코한인회 회장	· 엄기웅은 15년간 멕시코에서 무역/법률지식을 활용해 우리 기업과 동포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무료 변론, 법률 상담 등을 통해 동포사회 권익 보호 및 향상에 기여함.
83	오유순	밴쿠버 무궁화재단 이사장	· 오유순은 34년간 한글학교 교사, 무궁화여성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동포사회 차세대 육성, 여성커뮤니티 활동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캐나다 정부가 지원하는 한인 전용 공립요양병원 시설 설립을 위해 기부하는 등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84	왕매청	청도성문그룹 집행회장	· 왕매청은 200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선후로 청도국제공예품성그룹 재무총경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한중 간 친선교류, 한인 단체 및 조선족 동포단체의 안정적 발전 지원, 아국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 촉진, 봉사문화 전파 등에 기여함.
85	우옥경	유미레스토랑 대표	· 우옥경은 오랜 기간 한식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봉사와 탈북민과의 교류를 통해 동포사회 발전과 통합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86	우종태	재바레인한인회 고문	· 우종태는 바레인에서 한인회장, 민주평통 자문회의 위원 및 한글 학교장 등을 역임하며, 바레인 내 한인사회가 형성, 발전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한인 단합 제고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함.
87	유병훈	홍콩한인회 고문	· 유병훈은 홍콩의 정치적 격변과 코로나19 시기에 한인 단체의 리더로 봉사하며 마스크 지원과 성금 모금 등의 활동으로 동포사회의 위기 극복에 일조하여 단합과 화합을 끌어내고 한국국제학교 및 한글학교 발전을 통한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88	육원자	시카고한인회 이사장	· 육원자는 탁월한 지도력과 열정으로 시카고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였고, 여성 지위 및 한인사회 권익 향상에 기여함.
89	윤경복	뉴욕 한인커뮤니티재단 회장 및 공동설립자	· 윤경복은 미주 최초이자 최대 한인 자선단체 뉴욕한인커뮤니티재단의 회장이자 공동 설립자로, 40년 동안 한인 미주사회의 빈곤 완화 및 한인 자선 문화 성장에 공헌하였고, 월드뱅크, 비영리 단체 이사회, 방송 및 한인 커뮤니티 재단 활동 등을 통하여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함.
90	윤종희	월드옥타 케이프타운지회 여성이사	· 윤종희는 1990년대 남아공에 입성하여 지금까지 한식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한식을 현지에 전파한 노하우로 K-POP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 문화를 남아공에 전파하는 데 기여함.
91	윤행치	재일본대한민국 민단나라현지방본부 고문	· 윤행치는 나라현본부 의장 6년, 사쿠라이지단장 9년 등을 역임하면서 지문철폐 운동 및 지방참정권 획득 운동에 참여하고, 민단 조직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과 화합에 기여함.
92	故 이남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린츠한인교회 목사	· 故 이남기는 해외 거주 중인 한인과 유학생의 영적인 돌봄뿐 아니라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료 한인사회와 유학생의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현지 난민, 양로원, 교도소, 소외계층을 위한 기부, 상담, 일자리 소개 등 다양한 지원과 봉사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93	이광복	세계한인무역협회 트빌리시 지회장	· 이광복은 조지아 한인회 설립을 주도하고 한인회장으로서 십여년간 봉사하였으며 고려인 가족 발굴, 조지아 한류팬들을 위한 K-POP 대회 및 영화제 개최·후원, 세계한인무역협회 트빌리시지회 설립 지원 등을 통해 한-조지아 경제·문화 교류 증진과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94	이국자	애틀랜타한인회 자문위원장	· 이국자는 애틀랜타에 50년간 거주하며 다양한 한인 단체 활동을 통해 주류사회와 교류하며 아시안 증오 범죄 방지에 일조하였고, 코로나19 시기 애틀랜타 한인회관 전소 등 지역 한인사회 위기 극복에 기여함.
95	이규섭	재일본대한민국민단효고 현지방본부 상임고문	· 이규섭은 56년간 민단효고현에서 재일동포를 위한 권익옹호 활동, 자연 재해를 대비한 방재 대책 추진, 동포 고령자를 위한 시설 건설 등 재일 동포의 안전과 생활을 위해 오랜 기간 봉사하며 동포사회 단합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96	이대성	재일본대한민국민단오카마현쿠라시키지부 상임고문	· 이대성은 어린이학교를 신설하여 민족교육과 인재육성에 매진하여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민족의식 함양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97	이미경	재외동포재단 경영관리부장	· 이미경은 재외동포 전담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재외동포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핵심인재가 될 수 있도록, 채용, 교육, 경력개발 등 각종 직무 중심 인사경영제도 도입 및 체계 개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직 발전 및 재외동포사업 수행 전문성 강화에 기여함.
98	이상철	소주한국학교 이사장	· 이상철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한국상(인)회 회장, 소주한국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많은 활동과 봉사를 통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동포들을 지원해왔으며, 특히 소주한국학교 설립, 무석한국학교 설립 지원, 소주한국주말학교 지원 등을 통해 재외국민 교육 발전에 기여함.
99	이세호	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 의소 부회장	· 이세호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한인 단체에서 중책을 맡으며 한인 동포 및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PT. GORI GLOBAL INDONESIA의 대표로서 현지 경제, 정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양국 동반 성장에 기여함.
100	故 이승만	리브라더스 회장	· 故 이승만은 미국에 아시안 식품 유통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및 아시안 음식을 미국에 소개하고 유통하여 미국 사회에서 아시안 음식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 공헌하였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역 특산물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여 한식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기여함.
101	이승용	한국철도공사 지사장	· 이승용은 탄자니아 정부 발주 철도 사업을 투철한 사명감과 노력으로 수행하여 한국철도 차량 수주 및 후속 철도 사업 연계로 국익 증진에 공헌하고 CSR 활동 등을 통해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02	이용기	앤드류 앤 엘리자베스 기독교재단 이사장	· 이용기는 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하는 모국의 심장병 어린이를 초청,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의 안과진료와 수술을 지원하였으며 한인 차세대 정치력 신장, 자선재단 장학활동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03	이용만	한캄보디아상공회의소 회장	· 이용만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성공적인 기업인으로서 2008년부터 캄보디아 정부 주요 기관들과의 소통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동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자선활동 등을 통해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04	이유식	유리투자주식회사 회장	· 이유식은 각종 한인단체 사회 봉사로 교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모국의 후학과,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어학과에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민초 해외문학상 제정, 강연 등 문화 봉사를 통해 소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 앞장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05	이진희	이스트베이 한인회장	· 이진희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지난 10여년 동안 한인 2세 교육과 한인 동포들을 위한 지역봉사, 소외계층인 아동복지 사업 및 미국 주류사회에 문화 홍보 등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06	이창균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사무총장	· 이창균은 30여년간 신발 부속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월드옥타, 한국자유총연맹, 재인도네시아대한체육회, 야구협회, 문예총 등 여러 단체에서 봉사하며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07	이현주	필리핀한국여성연합회 이사	· 이현주는 한인회, 여성연합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한필 문화교류축제, 한필 청소년 오케스트라, 김치페스티벌, 필리핀대 한국학과 장학기금 등 한국과 필리핀간 교육 문화 예술 교류와 필리핀 저소득층 급식 지원 등 자선 행사 기획 등을 통해 동포 사회 발전과 양국 교류 강화에 기여함.
108	이홍민	재폴란드한인연합회 회장	· 이홍민은 코로나 위기 시 교민 귀국 및 현지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피란민 지원 등을 통해 동포사회 권익 향상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
109	이효성	(재)아르헨티나한인회 고문	· 이효성은 25년 이상 한인회, 민주평통,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등 동포단체 활동을 통해 숭선수범하여 봉사함으로써 한인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분쟁으로 위기에 처한 한인회를 정상화하고 한인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함으로써 아르헨티나 한인회 존속에 기여함.
110	이후진	중국 하남성정주 한국인(상)회 회장	· 이후진은 한인회장, 영사협력원 등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긴급소통 채널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국민 안전과 권익 신장에 공헌하였으며, 한글학교 운영 및 한중 양국 경제문화 등 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한인 위상 제고 및 양국 우호증진에 기여함.
111	임샬롬	샬롬임애드보카시 대표변호사	· 임샬롬은 동포1세 변호사로서 국제청년회의소, 브라질한인회, 하원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하며 브라질 한인 동포사회 및 주류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한-브라질 친선 및 우호 협력 증진에 기여함.
112	임태수	엘비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임태수는 1991년 이후, 한국어/문화 전파를 시작으로, 우리 정상급 인사 방문 실무지원, 한인을 위한 몽골생활 안내책자 발행, 몽골 투자 법령집 출간, 몽골 법률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한인사회의 현지 정착에 기여함.
113	임호성	아프리카-중동한인회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임호성은 26년간 동포 무역인으로서 한-사 교역을 통한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위난에 처한 동포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특히 최근 수단 우리국민 철수(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총영사관의 지원 준비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작전 성공에 기여함.
114	임홍순	괌한인회 회장	· 임홍순은 코로나19 시기 괌 정부와 협력하여 취약 동포들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동포사회 권익향상에 공헌하였고, 관광청 이사 재직 시 한국 저가 항공사들의 괌 취항을 지원하는 등 한-괌 교류 강화에 기여함.
115	장성동	서북3성한중기업협회	· 장성동은 기업인들 간의 친목 도모 및 교류, 세미나 개최, 행사 지원, 기업 방문, 전시회 참여 및 홍보 등을 통해 한-중 기업 간 소통 강화 및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16	재영한인의사협회	단체	· 재영한인의사협회는 매년 교육과 멘토링,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하여 국제 의료인의 영국 의료분야 진출 및 한인 정체성 유지를 지원하였으며, 의치대 학부생의 진로 안내 등을 통해 차세대 한인 의사들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17	재튀르키예한인회총연합회	단체	· 재튀르키예한인회총연합회는 23년 2월 튀르키예 대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모금활동 전개를 통해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 360동으로 구성된 한국마을을 건립하여 양국 우호 관계 증진에 기여함.
118	재파라과이한인회	단체	· 재파라과이한인회는 57년간 파라과이 거주 한인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인 권익신장과 결속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현지 사회와의 소통과 융합을 통하여 모범이 되는 단체로 발돋움 하는 등 파라과이와 대한민국의 우호 증진에 기여함.
119	전경숙	버지니아 아시안 태평양연합회 회장	· 전경숙은 워싱턴 한인사회에서 법원 중재자로 근무하며 어려움에 처한 한인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미주한인노인봉사회 회장과 이사장으로 다년간 봉사하였으며 한인단체 주요행사의 지원자로서 다양한 활동으로 미주류사회에 한국 이미지 제고와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20	전문중	커네티컷한인회 상임이사	· 전문중은 지난 43년 동안 커네티컷 한인회 및 미주세탁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커네티컷 토요한국학교, 대뉴욕지구 상공회의소 등에 상임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지역한인사회 교류, 차세대 장학금 마련, 한인회관 건축, 한인 비즈니스 전문화 등을 통해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함.
121	전범배	씨에스씨 보안경비회사 대표	· 전범배는 지난 10년간 ‘교민안전지원단’ 을 창설· 운영하여 재외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헌신하고, 캄보디아 지역사회 및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 동포사회 위상 제고에 기여함.
122	전영숙	前 광한국여성회 여성회장	· 전영숙은 광여성회장, 광관광청 국장, 평통위원 등을 역임하며 교류,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동포사회 발전과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하였으며, 차세대 동포 육성을 위해 한글학교 건립 추진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글학교 활성화에 기여함.
123	전옥희	한인문화예술연합회 수석 부회장	· 전옥희는 브라질 농촌 지역의 여인들과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미술작품을 통해 한-브라질 민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였으며, 교민 자녀 교육, 어르신 지도· 식사 도우미, 거리 청소 등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함.
124	전용희	중국한국인회산동연합회 회장	· 전용희는 불우이웃 빵 제공, 한국유학생 대상 장학금 정기 지원, 적십자를 통한 결손아동 지원, 불우 학생 장학금 지원, 5911버스참사 당시 유가족 지원 모금 활동, 코로나19 마스크 지원 등 20여년을 웨이하이시에 거주하며 현지인들을 섬기고 동포사회에 결집을 이루는 데 기여함.
125	정나래	독일 도르트문트 청소년합창단 지휘자	· 정나래는 독일 도르트문트 어린이와 청소년 합창단 지휘자로서 2017년부터 한국문화와 노래를 독일에 알리는 데 힘쓰고, 한독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화교류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 독일 대표 합창대회에서 아리랑 등 한국곡으로 우승하여 한국의 위상제고에 기여함.
126	정동권	위해한국인(상)회 회장	· 정동권은 17년간 본 회 부회장 및 (현)회장직을 역임하며 위해 지역 한국 교민들과 한인기업들의 권익 신장과 한중 양국 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2019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교민사회의 혼란을 신속히 대처하고 방역 지원을 통해 동포사회 보건 증진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27	정두환	베네수엘라 한인회장	· 정두환은 주재국 위기상황과 코로나 상황에서 동포사회의 안정에 노력하고 재외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추진함으로써 주재국내 한인사회의 위상을 제고하였으며, 초대 한상회장으로서 한인상공인을 규합하여 공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함.
128	정재윤	화동연합회 상임부회장	· 정재윤은 18년간 중국 한국상(인)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위상을 높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자녀들의 교육 발전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함.
129	정진영	JUNG's T.K.D. School 태권도 관장	· 정진영은 1975년 트리니다드토바고에 정착한 최초 교민으로, 현지 태권도장 개장(1976) 이후 세인트루시아, 바베이도스 등 주변국에도 태권도장을 개장하며 태권도의 세계화와 현지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에 기여함.
130	정태환	재향군인회 미중남부지회 회장	· 정태환은 남다른 애국심과 안보관으로 휴스턴 월남참전전우회 창설, 재향군인회 중남부지회 회장으로 동포사회 애국 의식 고취에 기여함.
131	정현식	쿠웨이트 파이낸스하우스 그룹어드바이저	· 정현식은 지난 10년 간 쿠웨이트 한인회 부회장 등 다양한 한인단체 활동을 통해 동포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봉사하고 있으며, 현지 은행에서 근무하며 우리 진출 기업들에게 경제·금융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양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
132	조성운	가나가와한국상공회의소 상임고문	· 조성운은 재일 유력 경제인으로서 동포의 생활향상과 동포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며, 재일한국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된 이후 동포 상공인의 영수로서 한일 관계 증진과 차세대 기업인 육성을 통한 재일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33	조언빈	중화민국대만한인회 회장	· 조언빈은 중화민국 대만 한교협회 회장, 민주평통 대만지회장, 한인 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2019.12월부터 중화민국 대만한인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2023.3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대만지회장을 겸임하며, 대만 한인사회의 위상과 화합발전에 기여함.
134	조영연	전 한카노인회 회장	· 조영연은 토론토 한인회 14년간, 재향군인회 캐나다 동부지회 30년간, 토론토 한국노인회 18년간 봉사한 것을 포함하여 특히, 한카노인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당시 60명의 회원을 1,200명으로 증원시켜 활성화 시키는 등 토론토 시니어 동포들의 권익 신장에 기여함.
135	조인재	South Korea Gen. Trd, 상무	· 조인재는 걸프전 당시 미처 피난하지 못한 한인동포들의 쿠웨이트 철수를 도왔으며, 한인회 이사, 고문으로 솔선수범의 자세로 봉사하며 한-쿠웨이트 수교 4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코로나19 시기 귀국 지원 등 동포사회 안전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
136	조지아범죄예방위원회	단체	· 조지아범죄예방위원회는 범죄예방 활동, 범죄 근절 캠페인, 세미나, 교육 및 학술적 리서치 등의 전개를 통해 안전한 한인/아시안 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으며, 미국 현지 경찰 등 범죄 예방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 교민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함.
137	조청자	홍콩한인여성회 감사	· 조청자는 홍콩한인여성회의 창립회원으로 전시회, 콘서트 등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국내 예술공연을 현지에 소개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익금을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등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으로 국내 우수 제품 발굴 및 수출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38	조형재	재외동포재단 전문위원	· 조형재는 약 20년간 재외동포재단에서 기획, 홍보, 정보화, 교류, 한상, 교육, 인권, 차세대사업을 맡아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제고 및 동포사업 활성화에 기여함.
139	故 조지 민	로스앤젤레스경찰국 형사	· 故 조지 민은 로스앤젤레스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과 원활히 의사소통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
140	중부루손 한인회	단체	· 중부루손한인회는 자율방범대 운영, 고문변호사 상담 서비스, 한비문화 교류 축제 개최, 교민 백신 지원, 튀르키예 대지진시 모금 활동 전개 등을 통해 동포들의 권익증진과 한필간 문화 교류 강화에 기여함.
141	진혜경	콜카타한인회 부회장	· 진혜경은 1998년 콜카타 한인회 설립에 기여하고, 현재까지 콜카타 거주 한인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기여함.
142	최도선	아르헨티나 한인상공인연합회 자문	· 최도선은 아르헨티나 주류 경제계에 진출한 주요 한인 기업인으로서 아르헨티나 경제계와 한인 동포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인 동포들에게 현지 경제 현황 및 전망을 적극 전달함으로써 한인 동포 경제 발전 및 권익 신장에 기여함.
143	최병일	재이탈리아한인회 고문	· 최병일은 35년간 주이탈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재외국민 고충 해결, 권익신장을 위해 헌신하였고, 4년간 한인회장으로서 동포사회 단결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함.
144	타케모토 타카토시	(주)Compass 대표	· 타케모토 타카토시는 일본에 유학중인 한국 등 아시아 유학생들의 교류 지원을 위해 아시아 청년 대상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한일 미래세대 육성에 공헌하였으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양국 국보급 불상 전시 개최 성사 등에 크게 역할을 하는 등 한일 문화교류 및 관계 발전에 기여함.
145	하영수	SF한미재단 의장	· 하영수는 SF한미재단 이사장으로서 지난 8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한 모금을 통해 장학금 지원 및 취약 계층 동포 지원으로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
146	한광수	前 재외동포재단 수석전문위원	· 한광수는 온라인 비즈니스 교류 플랫폼 ‘한상넷’ 사이트 구축·운영,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 신규 시행, 재중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도서 지원 등을 통해 모국과 동포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재외동포 지원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147	한미연합회	단체	· 한미연합회(KAC)는 40년간 유권자 교육, 투표독려 등 참정권 신장활동, 아시안증오범죄 대처 등 지역사회 옹호활동, 분쟁 중재조정, 차세대 리더십 양성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현안 및 민원 해결, 미주 한인의 민권 증진과 정치력 신장 등에 기여함.
148	한재령	사천성한국인회 고문	· 한재령은 사천성한인회 수석부회장 및 한인회장을 역임하면서 동포들의 교육,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코로나19 시기 동포들이 응급 치료와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형병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동포사회 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함.

연번	성명	소속·직위	주요공적
149	허현자	前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교장	· 허현자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미국 사회에 한국 문화를 홍보하였고, 민주평통 해외자문위원, 전주시 국제자문관 등을 역임하며 한-미 교류 협력 증진에 공헌하였으며, 아이에아한인문화학교 교장으로 봉사하면서 차세대 동포의 한국어 교육 발전과 정체성 함양에 기여함.

/끝/